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윤리학적 고찰

한혜민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국민윤리교육과
xxelloss@freechal.com

Ethical contemplation into software piracy

Hye-Min Han

Public Ethics Education Department, College of Edu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저작권에 대한 윤리학적 근거를 분석하고 저작권이 지니는 한계를 고찰하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그 주요 내용은 1)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 2) 불법 복제 방지에 있어서 저작권의 한계 고찰, 3)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의 모색으로 이루어져 있다.

1. 서 론

최근, 음악파일 공유를 증대하는 인터넷 사이트 ‘소리바다’의 운영자들이 검거¹⁾되면서 컴퓨터 상의 지적재산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있다. 과거에도 역시 냅스터 사건²⁾이나 Warez 사이트 운영자 집단 검거³⁾ 등의 이슈가 표출될 때마다 소프트웨어 지적 재산권과 불법복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렇듯, 소프트웨어에 대한 지적 재산권과 그를 침해하는 불법복제의 문제는 컴퓨터가 대중화되고 난 이후에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입장은 침해하여 ‘Copyright’로 대변되는 개발사, 지적재산권 소유자, ‘Copyleft’라 일컬어지는 정보공유주의자들의 두 진영에서는 합의점을 찾기 못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대표적 사이버 윤리학자 리처드 A 스피넬로가 지적하듯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극동 지역에서는 지적 재산을 공공 재산이나 사회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경향으로 인해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전통이 서구에 비해 훨씬 미약하다.⁴⁾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은 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가 서양에 비해 더욱 복잡하게 나타나며 그 해결 역시 미숙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먼저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이 지니는 윤리적 타당성을 고찰해 보겠다. 또한, 불법 복제 문제를 일으키는 인간의 본성 고찰을 통해 지적재산권이 지니는 한계를 분석하도록 하겠다.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

2.1. 개관

소프트웨어의 제작자는 저작권법에 의해 사후 50년 후까지 저작권을 보장받게 된다.⁵⁾ 이러한 저작권이 파생되는 윤리학적 근거로는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 공적주의의 분배적 정의론, 공리주의의 분배적 정의론을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위의 세 관점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윤리학적 근거를 분석하고자 한다.

2.2.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가장 심도 있게 고찰해야 할 것은 로크의 재산권 이론이다. 그는 ‘노동은 어떤 작용에 의해서 소유된 것과 공유된 것간의 경계선을 설정한다’⁶⁾고 주장하였다. 이 관점에서 언급하는 ‘공유된 것’은 신이 부여한 자연을 언급한다. 그런데, 소프트웨어 개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공유되고 있는 수학적 원리나 알고리즘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로크의 입장을 통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발생 이유를 설명한다면, 이는 ‘제작자가 그의 독창적 아이디어(노동)를 통해 공유된 것(수학적 원리, 알고리즘 등)을 자신에게 소유된 것(소프트웨어)으로 만드는 작용’에 따른 결과로 설명될 수 있다.

로크 이후의 자유주의자들의 논변 역시 제작자의 기여에 따른 권리 취득을 정당화한다. 개인 성취에 따른 분배를 정의롭다고 주장한 하이에크나 한계생산에 따른 분배를 정의롭다고 한 프리드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분배에 있어 기여를 중시한 점에서 동일하다.⁷⁾

로크의 재산권 이론에서부터 시작하여 현대 자유주의자들에 이르기까지 자유주의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소프트웨어 제작자에 대한 저작권의 부여는 공로에 따른 분배의 필연적 결과물로 귀결된다.

2.3. 공적주의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

공적주의 분배적 정의론은 무엇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그것을 가지는 상태를 정의로운 상태로 규정한다.⁸⁾ 이 공적주의는 다음의 세 가지 근거에 의해 공적이 분배의 중요한 기준이라 주장한다. 첫째, 공적에 따라 보상함으로써 효용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둘째, 공적주의는 개인의 자율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며, 셋째, 공적이 많은 사람에게 느끼는 감사와 찬사의 자연적인 표현방법이 상이나 보상이라는 것이다.⁹⁾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기여한 제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공적주의자들에 따르면 당연적인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저작권이란 소프트웨어 제작의 공적을 지닌 자들에 대한 ‘감사와 찬사의 자연적인 표현방법’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러한 공적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입장은 제작 과정에 있어서의 기여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입장과 상통한다.

2.4. 공리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관점

앞서 살펴 본 두 관점은 저작권을 개발 공로자에 대한 당연적인 보상의 입장에서 정당화하였다. 하지만, 이 절에서 다루게 될 공리주의 분배적 정의론은 저작권의 근거를 당위적이 아닌 목적론적, 실용적 측면에서 구하려 한다.

밑에 의하면 공리주의란 ‘행위란 그것이 행복을 증진하고 경향에 비례해서 옳으며, 불행을 산출하는 경향에 비례해서 그른 것’¹⁰⁾으로 설명된다. 이러한 공리주의 후생주의, 결과주의, 합계원리로 구성된다.¹¹⁾ 이 중에서, 공리주의 분배적 정의론을 통해 저작권의 정당성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결과주의를 고려하여야 한다.

결과주의는 한 행위의 옳고 그름이 그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생겨나는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것으로서 올바른 행위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다.¹²⁾ 공공에게, 그리고 최대 다수에게 최대 행복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를 지향하는 결과주의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작권을 통해 소프트웨어의 점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발전된 소프트웨어의 개발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이다.

3. 불법 복제 방지에 있어서 저작권의 한계 고찰

3.1. 개관

앞의 2장을 통해 저작권을 정당화하는 윤리학적 근거에 대해 탐구해 보았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윤리학적 입장을 통해 분석한 바와 같이 저작권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함에 있어 기여한 개발자에게 부여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역시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하지만, 현행 저작권 제도를 통해 불법 복제 행위를 제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앞서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 당국에서 통칭 Warez로 일컬어지고 있는 불법 복제 중계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도 우후죽순처럼 다시 생겨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장에서는 먼저 그러한 현상을 일으키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분석하여 보겠다. 그 연후에, 분석된 본성과 연관하여 저작권 제도가 불법 복제를 예방함에 있어 지니는 한계를 고찰하도록 하겠다.

3.2. 불법 복제 원인의 인간 본성 분석

인간의 심리 내부에는 상품을 구매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더 저렴한 대가를 치르려고 하는 본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는,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라 이야기하는 철학, 사회학적 견해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본성은 비윤리적인 후 사용하여야 할 상품의 일종인,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독창적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제한된 범위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아카데미 버전 등의 판매 방식 역시 인간의 경제적 본성을 겨냥한 것이다.

그런데, 고가의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여력이 없으며 할인 혜택 또한 받기 곤란한 대다수의 사용자들은 다른 방법을 찾게 된다. 그 방법을 찾으려 한 결과 합법적인 형태로 나타난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는 소프트웨어 대여 등을 들 수 있겠으며, 반대로 불법적인 형태의 행동으로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본 연구에서 논의가 진행중인 불법 복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는, 단속의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 위험의 비용을 초과할 정도로 소프트웨어가 고가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가 자행된다고 본다. 특히, 운영 체제나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가격은 고가이지만 일반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사용함에 있어 필수적이기 때문에 불법 복제의 빈도가 더욱 높은 편이다.

3.3.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저작권의 한계

앞 절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간의 경제적 본성에 따른 요구로 인해 단순히 저작권만으로는 불법 복제를 방지하기가 곤란하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을 행사함에 있어 실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의 입장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개발자의 입장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고 사료된다. 특히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격 책정의 측면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더욱 강하다. 그에 따라, 저작권에 의해 소외된 소비자 계층은 컴퓨터 사용에 있어서의 필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여 불법 복제라는 비정상적 방법으로나마 상황을 타개하려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

구는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를 방지함에 있어 저작권은, 그 행사자들이 소비자들의 곤란한 입장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한계를 지닌다고 본다.

4.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의 모색

4.1. 개관

앞서의 여러 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입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는 가격 책정 문제에 관심을 기울였다.

그 예로 최근의 글리벡 문제¹³⁾에서의 쟁점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다국적 기업에서 개발된 의약품의 경우에는 각 국가에 판매 할 경우 해당 국가의 경제적 조건을 고려하여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노바티스사는 이를 무시하고 스위스의 경제 사정만을 고려하여 글리벡의 가격을 책정함으로써 국제 사회의 비난을 받고 있다.

MS사의 대표적 OS인 Windows Me의 경우에는 미국 내에서 209불에 판매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303,600원이 정가이다.¹⁴⁾ 이렇듯, 소비자들은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책정된 가격이 필수 소프트웨어인 OS부터 불법 복제의 동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저작권을 통해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4.2. 적정 가격 책정을 위한 구체적 방법

이제, 앞장에서 내린 결론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모색하여 보겠다. 먼저, 가격 책정 이전에 철저한 대 소비자 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최근, 유료화 된 기존의 무료 콘텐츠들은 대체로 설문 조사를 통해 사용자들로부터 적정 이용료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수행하였다. 이처럼, 저작권이 등록된 소프트웨어 역시 판매 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로,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게임 CD의 경우에는 신제품 출시 후 '슈얼 CD'의 방식으로 원가의 1/4 정도의 가격으로 재출시된다. 이 슈얼 CD는 메뉴얼이나 불필요한 액세서리를 줄임으로써 생산 원가를 낮춘 것이다. 다른 소프트웨어 역시 이러한 방식을 통해 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프트웨어 유통에 있어서 다른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98년 도산 위기를 맞았던 한글과컴퓨터사는 시한부 사용권 인정이라는 조건 대신 1만원이라는 엽가에 한글815를 공급하였다.¹⁵⁾ 그 결과로, 98년 말에 도산할 수 있었던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

었다.¹⁶⁾ 이렇듯, 저작권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시한부 사용권 인정, 라이선스 대여 등의 새로운 방식으로 엽가에 공급한다면 불법 복제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당하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5. 맺으며

본 연구는, 지금까지 저작권에 대한 타당성,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저작권의 한계, 그리고 불법 복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안에 대해 탐구하였다. 대안을 탐구함에 있어서, 현행 제도가 단속 위주에 치중해 있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저작권에 대한 윤리적 고찰을 시도함으로써, 예방을 위한 실질적 대안에 대해 모색하게 되었다.

사용자 입장을 고려하여 저작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용이하지마는 않다. 제작자 입장에서는 자유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입장이나 공적주의 분배적 정의론의 입장에서 처럼 제작의 공헌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대안은, 일견 그러한 보상을 축소하게 된다는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법 복제가 이루어지는 순간 한 커피 분의 행사 가능한 저작권을 전부 상실한다고 하였을 때, 본 연구가 제시한 대안은 최소한 저작권 전부가 침해당하는 사태를 예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 1) 한국경제신문, 2001년 8월 12일자, 사회면.
- 2) 연합뉴스, 2001년 7월 29일자, 주요뉴스.
- 3) 서울경제신문, 2000년 12월 22일자, 정치면.
- 4) Richard A Spinello, 『정보기술의 윤리』, 철학과 현실사, 2001, p.236.
- 5) Ibid., p.246.
- 6) John Locke, Second Treatise of Civil Government (New York:Bobbs-Merrill, 1964), p.164.
- 7) 이재율, 『경제 윤리』, 민음사, 1995, pp.156-157.
- 8) Ibid., p.127.
- 9) Ibid., pp.128-130.
- 10) J. S. Mill, Utilitarianism (New York:American Library), p.257.
- 11) A. Sen, Resources, Values and Development (Boston: Harvard Univ Pr., 1997), pp.277-278.
- 12) Baruch Brody, 『응용 윤리학』, 종로서적, 1994, p.17.
- 13) 동아일보, 2001년 8월 19일자, 정치면.
- 14) Microsoft내 MSShop에서 발췌한 내용임.
- 15) 디지털 조선일보, 1998년 8월 19일자.
- 16) 디지털 조선일보, 1998년 10월 9일자.